

“석가탄신일 명칭 ‘부처님오신날’로”

이낙연 총리, 총무원장 자승스님 예방해 밝혀

이낙연 국무총리가 '석가탄신일'인 국가공휴일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주목된다. 이 총리는 지난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총무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총리는 “현재 불교계가 앞장서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기 위해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인사혁신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처님오신날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하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잘 챙기겠다”고 전했다.

이날 이 총리가 교계 오랜 숙원이었던 명칭 변경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현행 석가탄신일이 부처님오신날로 바뀌는 시기도 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SNS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이) 훨씬 쉬운 살아 있는 우리말”이라며 “내년에는 석가탄신일이 아닌 부처님오신날로 불자들에게 인사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휴일 명칭 개정은 관련 부처 제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사혁신처는 해당 사안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다. 정윤찬 문화부 사무관은 “이웃종교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체부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했고, 실무협의를 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도 공문

화 작업이 필요한 만큼 교계와 관련 부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종단은 지난 4월 인사혁신처에 공문을 보내고 부처님오신날로 명칭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1960년대부터 ‘부처님오신날’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다, 한글화 추세에 적합하고 ‘석가’는 부처님 당시 인도의 특정 부족명이자 부처님을 지칭하는 이름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이 총리는 총무원장 스님에게 취임 인사를 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 총리는 “부처님이 태어난 시대보다 지금은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사람들 마음이 평화롭고 세상이 공평한지를 지켜보면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총무원장 스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종단은 정부가 미처 다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특히 우리 사회의 차별을 줄이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며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예방에는 교육원장 현승스님, 총무원장 지현스님, 기획실장 주경스님, 사서실장 심경스님, 이기홍 중앙신도회장, 나중민 문체부 1차관 등이 배석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전국 국·공립박물관에 있던 분황사 모전석탑 사리 4과, 무량사 설점스님(김시습) 사리 1과 등 총 40과의 사리가 지난 9일 총본산 조계사로 이운돼 오는 7월 25일까지 일반에 공개된다.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사진 오른쪽이) '환지분처'한 사리를 안치하고 있다. 김형주 기자 cooljo@ibulgyo.com

원래 제자리로 돌아온 '사리'

국립박물관 수장고서 '총본산 조계사'로 이운 대한민국 국운융성 기원 7월 25일까지 친견법회

▶ 환수의미 및 과정 5면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던 '사리' 40과가 한국불교 총본산 조계사 품으로 돌아왔다.

서울 조계사는 지난 9일 경내에서 '대한민국 국운융성을 위한 조계사 사리친견 법회'를 봉행했다. 이번에 돌아온 사리는 분황사 모전석탑 사리 4과, 무량사 설점스님(김시습) 사리 1과, 조계사 봉안 사리 35과 등 총 40과로, 오는 7월25일까지 일반에 공개된다.

이는 조계종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해

5월 전국 국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사리 총 129과를 3년에 걸쳐 장기 대여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 국립박물관에 모셔져 있던 사리 총 129과가 제자리를 찾는다. 원소장처가 밝혀진 사리는 해당 사찰로 돌려보내고 소장처가 불분명한 사리는 총본산인 조계사 대웅전 내 안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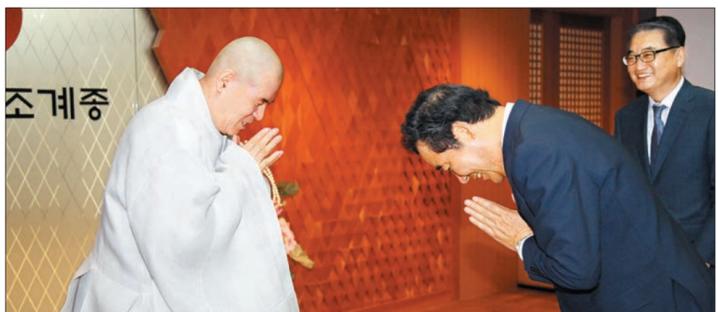
종단은 이날 법회에 앞서 국립공립박물관 별관에서 사리 반환을 기념하기 위한 이운 의식을 봉행했다. 이어 광화문을 지나 조계사로 향하는 이운 행렬을 시작했다. 행렬 선두에서는 취타대가 북, 팽과리, 장구 등 흥겨운 음악으로 '사리'의 환지분처를 축하했다. 사리함을 안치한 연(簾) 뒤로는 조계사 스님과 신도 등 500여 명이 뒤따라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어진 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치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민생의 간절한 발원이 깃든 사리를 불법의 도량에 다시 모시게 돼 기쁘다”며 “친견을 통해

맑은 마음으로 복전을 일구고 여기서 이뤄낸 선근으로 이웃과 사회에 행복을 나누며, 나라와 국민의 편안을 함께 기원하는 향기로운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은 교불문에서 “박물관에 모셔져 있던 사리를 예경과 신앙의 대상으로 정정도량, 총본산에 봉정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땅에 모든 이들이 스스로를 의지하고 사회 고통을 치유하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하겠다”고 서원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취임 인사차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석가탄신일 명칭 변경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해 관심을 모은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모연

- ARS모연 : 060-700-1027
- 문자모연 : #25401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장에 사찰명 또는 개인이름 입력)
- 모연계좌 : 농협 301-0160-9713-71 (계좌번호: 조계종본부계좌)
- 모연문의 : 02-730-6690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지면안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신임 이사장 지선스님 2면

불교동아리 만든 고교생들
파라미타도 자발적으로 가입
세종국제고 학생들의 '불교사랑' 3면▶



'노무현입니다' 이창재 감독 6면▶
인간관계 맺는데 '회의가...'
그렇다면 당신은 '관태족' 7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한
'호국보훈의 달' 주역
서산·사명대사, 만해스님 9면

부처님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되는 진정한 사부대중 공동체

프리미엄 승려복지관

심검당

행복한마을

HAPPY VILLAGE

프리미엄 공동체하우스

마음을 쉬는 정원 휴심정

불교는 사부대중이 서로 의지했을 때 비로소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승가는 재가불자님들을 정법의 길로 안내하고,
재가는 일불제자이신 스님들을 삼보중에 승보로써 정중히 모시게 됩니다.
입주민의 모연으로 건립되는 사부대중 공동체입니다.

www.happyvillage.or.kr

주소 : 경남 거창군 남하면 대야길 69-3 (사)행복한마을 모연접수처 070-4258-6510

행복한 절 주지 은산스님 010-3163-6510